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1

“우리도 함께 뛴다”

남도의 불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 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시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풍영정천변 달리며 활력 충전 전원 ‘하프코스 완주’ 도전장

■ 수완마라톤클럽

두근두근 뛰는 심장으로 광주 수완지구 풍영정천을 가로지르며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달리는 게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모인 광주수완마라톤클럽(회장 장영오) 동호회원들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일보 3·1 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했던 이들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순수 아마추어 회원들이 모인 수완마라톤클럽은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지키자는 의도로 지난 2010년 10월 창단된 신생 마

라톤 클럽이다.

회원들은 매주 화·목·일요일 오후 풍영정천 일대를 달리며 체력을 다지고 이웃 사촌으로서 끈끈한 정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생 마라톤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타 클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장영오 회장(40)은 “북에서 남으로 수완지구 중심부를 따라 흐르는 영산강 지류인 풍영정천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운동을 시작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다”며 “최근에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번개모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다듬으며 훈련량

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훈련부장 장영식(53)씨는 풀코스와 울트라 완주를 통해 쓰는 실력으로 회원들 사이에 고수로 통한다.

현역 군인으로 레바논에 파병을 다녀온 기도 한 그는 곱상한 외모와는 다른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고 있다. 체계적인 지도로 명성을 얻은 그는 산악훈련까지 병행하며 ‘사니조아’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막강한 훈련부장을 앞세운 수완마라톤 클럽 회원들은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광주수완마라톤클럽(회장 장영오) 동호회원들이 담양 한재골 일요훈련을 마친 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원 하프 코스에 도전한다. 회원들은 전원 완주는 물론 좋은 기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죄를 계획이다.

마라톤을 통해 몸매 관리에 성공한 소형준(41)씨의 각오는 남다르다.

클럽에 가입해 달리기를 시작한 소씨는 마라톤을 통해 몸무게를 15kg나 감량했다. 하지도 36인치에서 31인치로 줄었다.

총무팀장으로 팀 살립살이를 맡기도 했던 소씨는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

게 되었고, 올해는 결혼에 골인하면서 아이 까지 생기는 등 경기를 맞았다”며 “영원히 달리기를 사랑하는 마라톤 전도사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쿠웨이트전 이후는 없다”

최강희호 영암서 월드컵 준비 본격 훈련

29일 서울서 최종전



최강희 감독

장에서 겨울전지훈련을 치러왔기 때문이다. 영암에서의 1주일은 최강희호의 양날을 좌우할 결정적인 시간이 될 전망이다.

최 감독은 “기성용·박주영이 아직 합류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거의 다 모였다. 김정우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지만 중앙에 좋은 지원들이 많다. 1주일 정도 훈련하면 팀의 전반적인 윤곽이 들어 날 것이다. 기대가 많이 된다”며 “29일에 맞춰서 100% 이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쿠웨이트전 승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상’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곽태휘를 주장으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잘생겼으니까”라고 대답 해 사람들을 웃긴 최 감독은 “코칭스태프가 이정수와 곽태휘를 후보로 견의했다. 곽태휘가 윤선에서 주장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곽태휘를 선택했다.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고 답했다.

최 감독이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의욕이다. 최 감독은 “초반부터 강하게 나다가 보면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선수들이 오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쿠웨이트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감독이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의욕이다. 최 감독은 “초반부터 강하게 나다가 보면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선수들이 오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쿠웨이트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9일 오후 전남 영암의 현대사계절 잔디축구장에서 첫 소집훈련을 시작했다. 이동국과 하대성이 볼을 다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내용? 난 강해졌다”

이동국 월드컵서 자존심 회복 선언

K리그 MVP 이동국이 국가대표 MVP를 겨냥한다.

국가대표 공격수 이동국이 19일 진행된 대표팀 첫 훈련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니까 예전의 얘기를 들었다. 더 강해질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동국은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한국프로축구 최초로 개인상 4관왕을 달성했다. 이동국은 K리그를 험하며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섰지만 대표팀과는 큰 인연을 맺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눈에 띠는 활약을 하지 못하며 ‘국내용’이라는 오명을 싸야했던 이동국은 새로 출범한 최강희호에서 자존심 회복을 벼르고 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은사 최강희 감독과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이동국은 “큰 부담감은 없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뛰겠다. 새로운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감독님께서 전북에서 했던 역할을 원하실 것이다. 앞선 기회에서 좋은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다. 달라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달라진 ‘국가대표 이동국’을 꿈꾸는 이동국에게 최강희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는 가장 큰 무기다.

최 감독은 “이동국과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동국이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대표팀에서는 부족했다.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며 “가지고 있는 능력 경기력을 발휘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신뢰를 보였다.

전북의 우승을 학자한 김상식·박원재·조성환도 이동국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달라진 환경에서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단 이동국이 A매치 무대에서 마침내 날개를 펼 수 있을지가 최강희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영암=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미센팅, 3M 코팅, 모비스 셱팅
- 맥과이어스 플렉, 코팅, 실내 클리너, 하부 앤더 코팅
- 만도 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 네이비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DMB 샤크 안테나
- 자동차 경비 일체, 멀티리더, 오일 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수입 타이어

- 천연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수입 차 가죽 시트 제조
- 바디 방음, 천장 방음, HID 텁크, LED 램프
- 이어 상품, 거울 상품, 체인

- 모비스 순정 용품, 카약 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명 판매

주차장 700명 주차 걱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 카메라 | 샤크 안테나



도난 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 버튼

